

일중심성이 중고령자의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의 매개효과*

두 송 화

김앤장

장 재 윤[†]

서강대학교

이 주 일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은퇴 전 일중심성이 높았던 개인들이 은퇴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중심성이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생성감의 매개효과와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은퇴한 중고령자(55~70세)를 대상으로 일중심성, 활동적 노년, 생성감, 미래시간조망을 측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 대한 생성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나,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간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전 일을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들이 은퇴 후 역할 상실로 인해 은퇴 후 적응 수준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감을 매개로 하여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생성감, 활동적 노년, 일중심성, 미래시간 조망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609).

† 교신저자 : 장재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jych@sogang.ac.kr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에는 5.1%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3%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3).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 역시 2011년 기준 남자 17.4년, 여자 21.9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20년 가량의 삶을 노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은퇴 시기는 행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보다 10여년 정도 앞서고 있어, 은퇴 시점 이후를 노년기의 시작으로 본다면 노년기가 약 3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2013) 조사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도 고령자의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들이 고령자의 노년기 적응 양상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이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혹은 노년기 적응의 지표로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후의 생활만족도에서의 차이에 대한 성미애와 최새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은퇴자일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서의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숙과 이미진(2006)의 연구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으로 건

강하다고 판단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도 소득이나 순자산이 많을수록, 즉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Elder & Rudolph, 1999). 정혜경과 정영숙(2010)의 연구 역시 은퇴 후 노년기의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신현구, 2007; 정순둘, 이선희, 2011; 한형수, 2008; Lee & Law, 2004). 건강 상태와 경제 수준은 또한 노년기의 바람직한 적응 형태를 제시한 성공적 노년이나 생산적 노년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공적 노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중 두 조건에 정신 및 신체적 기능의 유지와 신체적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적 노년에서도 노년기의 다른 활동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경제적 요인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공적 노년 및 생산적 노년이 노인의 삶의 제한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최근에는 노년기의 적응에 있어 참여, 건강, 안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활동적 노년(active ageing)이라는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나 활동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 또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남성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김미영, 손서희, 박미석, 2011).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잦은 교류 및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김영혜, 2004; Chou, Chi, & Chow, 2004).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성미애, 1999).

이 외에도 일과 관련된 요인, 즉 직장 경험이나 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 역시 중고령자의 노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은퇴 과정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은퇴를 자발적으로 결정했던 은퇴자는 은퇴 후 적응 수준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Quine, Wells, de Vaus, & Kendig, 2007),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Ebersole, Hess, & Luggen, 1998; Gallo, Bradley, Siegel, & Kasl, 2000).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에도 은퇴 후 만족도가 낮았다(백은영, 2009). 은퇴 계획과 관련해서도 은퇴 계획을 세운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불안 수준이 더 낮았으며 적응 수준 및 만족도가 더 높았다(Feldman, 1994).

직장 관련 경험에 있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경숙(2000)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이전 직업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오래 종사했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인 노인일수록 다른 직종에 종사한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생산직이나 농어업에 종사했던 노인에 비해 전문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

들이 경제상태, 자존 욕구의 충족, 주관적 안녕감 및 신체적 건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석, 2009).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일과 관련해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영향 및 은퇴 과정과 관련된 요인에만 주로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지닌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09시간에 비해 약 380시간가량 많은 실정이다(OECD, 2013).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 시간이 매우 길어 일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일과 관련된 경험이 중고령자의 노년기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른 자원보다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일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 지향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에서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자기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즉, 일을 얼마나 삶의 중심에 두었는지에 관한 일중심성 또한 중고령자의 은퇴 후 노년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을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은퇴 후 어떠한 삶을 보내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일 중심성

일 중심성(work centrality)이란 개인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일을 목적 그 자체로 강조하고 여가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Weber(1930)의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Protestant work ethic)에서 기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Dubin(1956)은 이를 더욱 확장시켜 일 중심성을 삶의 중요한 관심사(central life interest)로 정의하였다. 또한 Paullay, Alliger, 및 Stone-Romero(1994)는 일 중심성을 삶에서의 일의 중요도에 대해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nungo, 1982; MOW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

일중심성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일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 즉 일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일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며 직무에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Hirschfeld & Feild, 2000). 또한 그들은 은퇴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Arvey, Harpaz, & Liao, 2004; Mannheim, 1975; Miller, Woehr, & Hudspeth, 2001). 이외에도 일중심성은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Herrbach, Mignonac, Vandenberghe, & Negrini, 2009; Mannheim, 1993; Schmidt, & Lee, 2008).

또한 여러 연구들은 일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Lorence(1987)의 '성별 모형(gender model)'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직업적으로

경력을 쌓고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들은 더 가정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그들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되어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들은 일중심성에 있어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Cohrs, Abele, & Dette, 2006; Schmidt, & Lee, 2008),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일중심성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연령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연령과 일중심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Arvey, Harpaz, & Liao, 2004; Mannheim, Baruch, & Tal, 1997).

활동적 노년

노년기 삶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성공적 노년과 생산적 노년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개념들의 대안으로 활동적 노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적 노년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년기 적응에 대한 기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공적 노년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활방식 및 선택에 따라 노화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Estes, Mahakian, & Weitz, 2001). 즉, 노인을 병리적이고 정체된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성공적 노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Rowe와 Kahn(1998)은 질병과 장애의 부재, 높은 수준의 신

체적 및 인지적 기능 유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선택 및 노력이 성공적인 노년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성공'이라는 선호되는 가치를 담고 있어 실패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최희경, 2006), 노인으로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대해 성공 혹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성공적 노년의 세 조건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대부분의 노인은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성혜영, 유정현, 2002). 또한 성공적 노년은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개인의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Riley, 1998).

이와 달리 생산적 노년은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급이든 무급이든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Caro, Bass, & Chen, 1993). 이에 따르면 노인이 하는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인지 아닌지는 여부는 그 행동이 자신 혹은 사회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가를 통해 판단된다(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이처럼 생산적 노년은 경제적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유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개념들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노년기 적응을 다루는 활동적 노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WHO (2002)에 따르면, 활동적 노년은 노년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participation), 건강(health), 안전(security)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활동적'의 의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적 및 공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유경 등, 2014), 구체적으로 '노인의 발전', '노년기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를 목표로 한다(정경희, 2011).

이러한 활동적 노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세 요소를 강조한다. 먼저 참여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기개발 활동, 봉사활동, 사회적 접촉 활동, 종교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인 자율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안전은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후 삶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WHO, 2002). 다시 말하면 활동적 노년이라는 것은 노년기에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이를 위해 건강과 안전이라는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활동적 노년이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 결정 요인 역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데(Walker, 2006), 신체 활동이나 알콜 및 약물 사용과 같은 행동적 요인, 유전이나 심리적 요인 같은 개인적 요인, 문화 및 성(gender), 건강 및 사회보장제도, 물리적 환경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된다(WHO, 2002).

일 중심성과 활동적 노년간의 관계

은퇴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Barfield & Morgan, 1969;

Morse, Dutka, & Gray, 1983),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이후 적용이 달라지곤 한다.

먼저 역할이론(role theory)의 관점에서 은퇴는 일과 관련된 역할이 상실 혹은 약화되고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역할 전환(role transition)'의 과정으로 여겨지며(Barnes-Farrell, 2003), 이러한 역할의 상실이 불안이나 우울을 유발하여 은퇴 시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Thoits, 1992). 특히 일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즉 높은 수준의 일 중심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있어 은퇴는 더 큰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다(Burke, 1991).

반면,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에서는 개인이 일관적인 자기 개념과 생활 방식을 지니고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Atchley, 1989, 1999), 이에 따르면 노년기에 있는 개인들은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피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이전의 경험에서 학습했던 전략들을 사용하여 현재의 내적 및 외적 구조들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은 은퇴 후에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인생의 다른 영역보다 일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 자신의 성과나 경력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일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활동적 노년의 주요 요인인 '참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일 것

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¹⁾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재직 중의 일중심성이 높을수록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일의 의미로서의 생성감

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삶의 중심부에 있으며 개인은 일에 대해 여러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의 의미(meaning of work)란 개인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가치(value), 신념(belief), 기대(expectation)로, 이는 가족, 교육 기관, 조직과 같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일의 목표, 일에 관한 사회적 규범, 일 정체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참조 틀(frame of reference)로서 기능한다(Quintanilla, 1991).

일의 의미는 개인이 일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초기 연구들은 Alderfer(1969)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이라는 세 요인에 근거하여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Florian, 1982; Neff, 1977; Perlman, 1982). 이후 Mor-Barak (1995)은 다음 세대를 확립하고 지도하고자 하

1) 활동적 노년의 세 가지 요소 중 안전과 건강도 일중심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참여가 일중심성과 '행동적' 측면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구나 활동적 노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안전과 건강은 참여를 위한 선행 기반 조건에 가깝기에 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과 건강이 담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는 관심을 의미하는 Erikson(1963)의 생성감 요인을 추가하여 총 4요인(16문항)으로 구성된 일의 의미 척도(Meaning of Work Scale: MWS)를 개발하였으며, 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욕구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고 명성 및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둘째는 개인적(personal) 만족 욕구로서, 이는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개인적 만족감, 자기-존중감, 자부심과 관련된다. 셋째는 재정적(financial) 욕구로서, 일과 관련된 수입 및 수익에 대한 욕구를 나타낸다. 넷째는 생성감 욕구로 젊은 세대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및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이다(이종은, 장재윤, 2009).

Mor-Barak(1995)에 따르면, 네 가지 요인 중 생성감 요인은 백인과 비백인 노인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 생성감이 인종이나 문화 간 차이 없이 일의 의미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성감 요인의 중요성은 젊은 세대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노인들에게 특히 가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중심성과 생성감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삶에서의 일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필요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일 자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일을 통해 사회적 접촉이나 재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존재 및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려는 경향

이 강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과 유사한 관점에서 Templer, Armstrong-Stassen 및 Cattaneo(2010)는 50~70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중심성이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중심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career job) 집단, 가교일자리(bridge job) 집단, 자영업자(self-employed) 집단 모두에서 생성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젊은 세대에게 전문성과 지식을 전수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재직 중의 일중심성이 높았을수록 일에 대해 생성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의 관계

생성감은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7단계인 중년기 이후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Mor-Barak(1995)은 생성감이 젊은 세대와 함께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에 대해 생성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지닌 지식과 경험을 제공 및 공유하고자 하므로 이와 관련된 활동에 더욱 몰입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지식을 경험을 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타인을 돕는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생성감이 높을수록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을 것이다.

생성감의 매개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삶의 다른 영역보다도 일을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일에 대해 사회적 접촉 욕구나 재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고 증명하는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의 의미 중에서도 생성감을 높게 느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높은 생성감은 계속해서 자기개발을 하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활동적 노년의 핵심적인 요소인 '참여'에서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성감이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 4.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서 생성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

미래시간조망은 개인이 자기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Care & John, 2007)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 경험에 초점을 둔다(Lang & Carstensen, 2002). Lang과 Carstensen(2002)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

로 남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 즉 확장적인 미래시간조망을 지닌 개인들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정보 추구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개인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안녕감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미래시간조망을 지니는지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주일(2013)의 연구에 따르면, 확장적인 미래시간조망을 갖고 있는 노인일수록 목표추구적인 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을 통해 생성감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미래시간조망을 지니는지에 따라 이후의 활동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에 대해 생성감을 느끼고 확장적인 미래시간조망을 지닌 개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지식 및 경험을 전수하려는 욕구가 강한 중고령자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지각한다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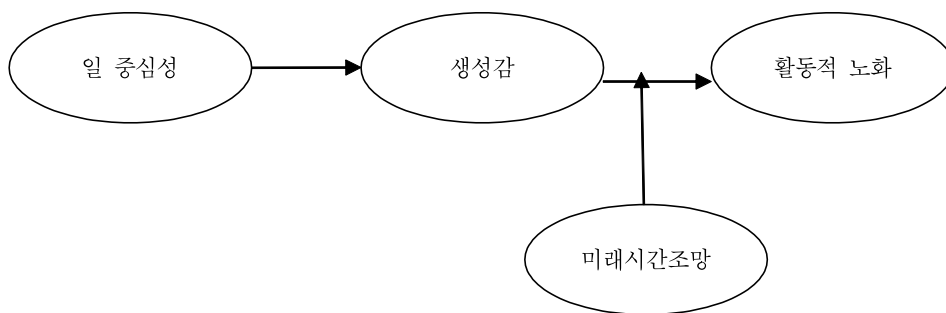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재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및 경험을 더욱 확장시키는 활동에 더욱 몰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확장적인 미래시간조망을 가질수록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 수준간의 관계 강도가 더 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가설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인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고령자라는 대상의 특성 상 직접 응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는 258명이었다. 현재 자신의 주 경력으로부터 모두 은퇴한 분들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258명 중 131명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83.3%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범위는 만 55세에서 만 70세로 평균 연령은 64.45세였으며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은 64.34%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29.1%)이 그 뒤를 이었다.

측정 도구

일중심성

일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Paullay 등(1994)이 개발한 일중심성 척도(Work Centrality scale)와 Ellemers, de Gilder, 및 van den Heuvel (1998)의 경력지향몰입 척도(career-oriented commitment)를 번안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일중심성 척도는 원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인생은 일에 몰두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등이 있다. 경력지향몰입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시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었다” 등이 있다(부록 참조). 본 연구는 과거 재직 중에 얼마나 일중심성이 높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원 척도 문항에서의 현재형 시제를 과거형으로 변경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총 12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활동적 노년

활동적 노년을 측정하기 위해 유경 등(2014)이 타당화한 활동적 노년 척도 중 ‘참여’ 요인에 속한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지역 공동체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상담해준다” 등이 있으며(부록 참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총 9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였다.

생성감

생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or-Barak(1995)

의 일의 의미 척도(MWS; Meaning of Work Scale) 중 생성감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총 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중복되거나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라 번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이종은, 장재윤, 2009). 문항은 “일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다”,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다”, “일은 내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증명할 기회가 된다” 등이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총 3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이었다.

미래시간조망

미래시간조망을 측정하기 위해 김민희(2003)가 번안한 Lang과 Carstensen(2002)의 1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내 미래에는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

다). 총 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였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일중심성은 활동적 노년 및 생성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생성감은 미래시간조망 및 활동적 노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미래시간조망의 경우, 연령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활동적 노년 및 생성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은퇴 이전 자신이 하는 일에서의 일중심성,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 생성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의 관계에 대한 생성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일중심성을 투입하였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단순 상관계수

	1	2	3	4	5	6
1. 성별	-					
2. 연령	-.26**	-				
3. 일중심성	-.29**	.13*	-			
4. 활동적 노년	.07	-.04	.17**	-		
5. 생성감	-.11	.03	.44**	.31**	-	
6. 미래시간조망	.10	-.25**	.07	.27**	.30**	-
평균	1.49	64.45	3.25	2.00	3.14	2.54
표준편차	.50	4.00	.43	.67	.71	.50

주)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입력하여 분석함. * $p < .05$, ** $p < .01$.

이후 3단계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일중심성과 매개변인인 생성감을 투입하였다. 모든 위계적 회귀분석에는 입력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중심성이 활동적 노년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중심성은 2단계 회귀분석에서 활동적 노년과 $\beta = .21(p < .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모형 4), 은퇴 이전의 일중심성이 높을수록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중심성이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일중심성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일중심성은 활동적 노년과 $\beta = .45(p < .01)$ 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모형 2), 은퇴 이전의 일중심성이 높을수록

일에 대해 생성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생성감이 활동적 노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에 생성감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생성감은 활동적 노년과 $\beta = .32(p < .01)$ 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모형 5). 이를 통해 생성감이 높을수록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전 직무에서의 일중심성과 은퇴 후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 대한 생성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측 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하는데, 앞서 수행한 분석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일중심

표 2.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생성감		활동적 노년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통제 변인:					
성별	-.11	.01	.07	.12	.10
연령	-.00	-.03	-.03	-.04	-.03
예측 변인:					
일중심성		.45**		.21**	
매개 변인:					
생성감					.32**
R^2	.01	.19**	.01	.05**	.11**
F	1.52	20.28**	.74	3.95**	10.15**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성과 생성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중심성의 β 값은 .45($p < .01$)에서 .08($t = 1.13$, n.s.)로 감소하였고, 생성감은 $\beta = .29$ ($t = 4.37$, $p < .01$)를 보여,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중심성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한 Sobel 검증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Z = 4.40$, $p < .01$).

다음으로, 미래시간조망이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을 1단계, 생성감과 미래시간조망을 2단계, 생성감과 미래시간조망의 상호작용변인을 3단계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단계에서의 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한 베타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생성감을 많이 느끼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확장적인 미래시간조망을 지닐수록 활동적 노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최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중고령자의 은퇴 후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건강이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었는데,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 혹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신현구, 2007; 정순돌, 이선희, 2011; 한형수, 2008; Lee & Law, 2004).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성공적 노년, 생산적 노년, 활동적 노년과 같은 신노년(New aging) 담론에 포함되어 노년기 적응의 지표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 활동 수준,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도 노년기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김미영 등, 2011; 김영혜, 2004; 성미애, 1999; Chou et al., 2004). 또한 은퇴자발성, 은퇴계획, 은퇴 전 직종과 같이 일과 관련된 이전의 경험 역시 노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에 소요하는 시간이 매우 길고 일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일과 관련된 요인들이 은퇴 후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삶에서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된 일중심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은퇴 후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은퇴 이전의 일중심성이 은퇴 후의 활동적 노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생성감의 매개효과와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에 대한 미래시간조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중심성은 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일중심성이 은퇴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역할이론을 토대로 은퇴에 대한 일중심성의 부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한 Burke(1991)의 연구에서는 일중심성이 높을수록 은퇴를

스트레스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Wong과 Earl(2009) 역시 역할이론에서 주장하는 역할 상실로 인한 적응 수준의 저하 측면에서 일중심성을 연구하였으나, 일중심성과 은퇴 후 적응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마찬가지로 일관적인 자기 개념과 생활 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연속성의 유지가 은퇴 후 적응에 기여한다는 연속성 이론의 관점에서 일중심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퇴 전 직무에 대한 일중심성이 높았던 개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자 하므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에 몰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활동적 노년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은퇴 전 직무에서 일중심성이 높았던 개인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동적 노년의 참여 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과 관련된 역할을 잃은 개인이 상실감을 느껴 은퇴 후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을 보고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은퇴 전 일중심성이 높았던 개인은 일이라는 일종의 활동에 몰입했던 에너지를 유사한 맥락의 다른 활동에 집중시킴으로써 은퇴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일중심과 활동적 노년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여기에서 생성감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 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 하나로, 젊은 세대와 함께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다

(Mor-Barak, 1995).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은퇴 전에 일중심성이 높았던 개인은 일을 통해 사회적 접촉이나 재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일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일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확인하며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생성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여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후대에 전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은퇴 전의 일중심성과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의 관계에서 생성감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일을 할 때 자신이 지닌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생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은퇴 후에도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활동적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생성감과 활동적 노년 간의 관계를 미래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미래시간조망이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활동적 노년 수준에 대한 생성감과 미래시간조망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령자들이 지닌 미래시간조망이 그들의 은퇴 후 활동적 노년 수준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건강이나 재정과 같은 개인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 지각 또한 은퇴 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연구된 일중심성이라는 일 관련 요인이 은퇴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서는 의의가 있으나, 일중심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회고적인(retrospective)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응 편향(response bias)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즉,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중심성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퇴를 한 개인에게 은퇴 이전에 자신이 주로 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느꼈던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에서의 일중심성을 측정하여 은퇴 후의 활동적 노년 수준을 예측하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횡단적인 연구 설계로 인해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활동적 노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후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년 수준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활동적 노년 척도 중에서도 ‘참여’ 부분의 일부 문항만을 사용함으로써 참여, 건강, 안전이라는 활동적 노년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 직무 요구 등과 같이 은퇴 전 일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활동적 노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적응과 관련된 연속성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설정하여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연속성이론과는 다르게 역할 이론 또는 선택-최적화-보상(SOC) 모형(Baltes & Baltes, 1990)에서는 노년기를 개인의 주요 자원의 상실 과정으로 전제한다. 따

라서 어떤 조건에서 연속성 이론 또는 역할이론이 더 지지되는지를 구분해주는 한계 조건들을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에 한정된 제한점이 있다. 서울 거주 고령자들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등이 타 지역의 고령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은퇴 이전의 일중심성이 은퇴 이후의 활동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반복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김미영, 손서희, 박미석 (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 김민희 (2003).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27(1), 1-30.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 박군석 (2009). 은퇴 노인의 주관안녕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퇴전 직종에 따른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2), 291-318.
- 백은영 (2009).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44, 345-371.
- 성미애 (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미애, 최새은 (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 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3-25.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의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신현구 (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월간 노동리뷰*, 27, 81-93.
- 유 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활동적 노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4(3). 출간 중.
- 윤현숙, 이미진 (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97-217.
- 이종은, 장재윤 (2009).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근로 동기에 따른 유형 분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4), 487-514.
- 이주일 (2013). 안전애착, 5 요인 성격, 생산적 노년에 미래시간관점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2), 341-340.
- 정경희 (2011).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MIPAA)과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의 비교분석. *한양고령사회 논집*, 2(1), 29-50.
- 정경희, 이윤경, 윤지은 (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이선희 (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1994, 2004, 2008년)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31(4), 1229-1246.
- 정혜경, 정영숙 (2010). 은퇴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51-70.
- 최희경 (2006). 우리나라 노인복지연구의 노년학 이론 활용에 관한 분석. *노인복지연구*, 34, 7-29.
- 통계청 (2013). 2013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형수 (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Alderfer, P. C.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 142-175.
- Arvey, R. D., Harpaz, I., & Liao, H. (2004). Work centrality and post-award work behavior of lottery winner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8, 404-420.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 183-190.
- Atchley, R. C. (1999). Continuity theory, self, and social structure. In C. D. Ryff, & V. W. Marshall (Eds.), *Families and retirement*, pp. 145-158. Newbury Park, CA: Sage.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field, R., & Morgen, J. (1969). *Early retirement: The decision and the experience*. Ann Arbor: ISR.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rnes-Farrell, J. L. (2003). Beyond health and wealth: Attitudinal and other influences on retirement decision-making. In G. A. Adams, & T. A. Beehr (Eds.),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pp. 159-187. New York: Springer.
- Burke, P. J. (1991).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836-849.
- Caro, F. G., Bass, S. A., & Chen, Y. P. (1993). Introduction: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In S. A. Bass, F. G. Caro, & Y. P. Chen (Eds.),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Cate, R. A., & John, O. P. (2007). Testing models of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future time perspective: Maintaining a focus on opportunities in middle age. *Psychology and Aging*, 22(1), 186-201.
- Chou, K. L., Chi, I., & Chow, N. W. S. (2004). Sources of income and depression in elderly Hong Kong Chines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strain. *Aging and Mental Health*, 8(3), 212-221.
- Cohrs, J. C., Abele, A. E., & Dette, D. E. (2006). Integrating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Findings from three samples of professional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 363-395.
- Dubin, R.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s: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 131-142.
- Ebersole, P., Hess, P. A., & Luggen, A. S. (1998).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 (5th ed.). St. Louis, MO: Mosby.
- Elder, H. W., & Rudolph, P. M. (1999). Does retirement planning affect the level of retirement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8(2), 117-127.
- Ellemers, N., de Gilder, D., & van den Heuvel, H. (1998). Career-oriented versus team-oriented commitment and behavior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5), 717-730.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stes, C. L., Mahakian, J. L., & Weitz, T. A. (2001). Political economy critique of "productive aging". In C. L. Estes (ed.), *Social policy and ag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eldman, D. (1994). The decision to retire early: A review and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 285-311.
- Florian, V. (1982). The meaning of work for physically disabled clients undergo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5, 375-377.
- Gallo, W. T., Bradley, E. H., Siegel, M., & Kasl, S. V. (2000). Health effects of involuntary job loss among older workers: Findings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3), S131-S140.
- Herrbach, O., Mignonac, K., Vandenberghe, C., & Negrini, A. (2009). Perceived HRM practi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voluntary early retirement among late-career managers.

- Human Resource Management*, 48, 895-915.
- Hirschfeld, R. R., & Feild, H. S. (2000). Work centrality and work alienation: Distinct aspects of a general commitment to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7), 789-800.
- Kanungo, R. N. (1982). 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341-349.
- Lang, F. R., & Carstensen, L. L. (2002). Time counts: Future time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and aging*, 17(1), 125.
- Lee, W. K. M., & Law, K. W. K. (2004). Retirement planning and retirement satisfaction: The need for a national retirement program and policy in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3(3), 212-233.
- Lorence, J. (1987). A test of "Gender" and "Job" models of sex differences in job involvement. *Social Forces*, 66(1), 121-142.
- Mannheim, B. (1975). A comparative study of work centrality, job rewards and satisfaction.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2, 79-102.
- Mannheim, B. (1993). Gender and the effects of demographics, status and work values on WRC. *Work and Occupations*, 20, 3-22.
- Mannheim, B., Baruch, Y., & Tal, J. (1997). Alternative models for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 centr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high-tech personnel. *Human Relations*, 50, 1537-1562.
- Miller, M., Woehr, D. J., & Hudspeth, N. (200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Work Ethic: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 1-39.
- Mor-Borak, M. E. (1995). The meaning of work for older adults seeking employment: The generativity fa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 325-344.
- Morse, D., Dutka, A. B., & Gray, S. H. (1983). *Life after early retirement: The experiences of lower-level workers* (Vol. 17). Totowa, NJ: Rowman & Allanheld.
- MOW [Meaning of Working] International Research Team. (1987). *The Meaning of Working*. London: Academic Press: Neff, W. S. (1977). *Work and human behavior* (2nd ed). Aldine, New York.
- OECD (2013). *Employment Outlook*.
- Paullay, I. M., Alliger, G. M., & Stone-Romero, E. F. (1994). Construct validation of two instruments designed to measure job involvement and work centra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2), 224-228.
- Perlman, H. H. (1982). The client as worker: A look at an overlooked role. In S. H. Akabas & P. A. Kurzman (Eds.), *Work, workers, and work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Podsakoff, P. M., MacKenzie, S. M., Lee, J.,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variance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879-903.
- Quine, S., Wells, Y., De Vaus, D., & Kendig, H. (2007). When choice in retirement decisions is mis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of impact on well being. *Australasian Journal*

- on Ageing*, 26(4), 173-179.
- Quintanilla, S. A. R. (1991). Introduction: The meaning of work. *European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ist*, 1(2), 81-89.
- Riley, M. W. (1998).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8(2), 151-151.
- Rowe, J., & Kahn, R.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 Schmidt, J. A., & Lee, K. (2008). Voluntary Retirement and Organizational Turnover Intentions: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work and non-work commitment constructs. *Journal of Business Psychology*, 22, 297-309.
- Templer, A., Armstrong-Stassen, M., & Cattaneo, J. (2010). Antecedents of older workers' motives for continuing to work.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5(5), 479-500.
- Thoits, P. A. (1992). Identity structur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Gender and marital status comparis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236-256.
- Walker, A. (2006). Active aging in employment: Its meaning and potential. *Asian-Pacific Review*, 13(1), 78-93.
- Weber, M.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Winchester, MA: Allen & Unwin.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HO.
- Wong, J. Y., & Earl, J. K. (2009). Towards an integrated model of individual, psychosocial, and organizational predictors of retirement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1), 1-13.

1 차원고접수 : 2014. 04. 08

2 차원고접수 : 2014. 06.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8. 18

The Effects of Work Centrality on Active Ageing among the Older Adults: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Songhwa Doo

Jae Yoon Chang

Juil Rie

Kim & Chang

Sogang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Thi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ork centrality during one's entire career on the post-retirement adaptation(esp. active ageing) among older persons. Specifically, it was intended to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on the work centrality and active age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uture tim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ity and active ageing. By analysing the data from the retired older persons(55~70 yrs.),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generativity fully mediated the effect of work centrality on active ageing the following results. However, there was no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future time perspective. These results did not support the role theory, but confirm the prediction based on the continuity theory which holds that older adults attempt to preserve and maintain existing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and they pref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by using strategies tied to their past experiences.

Key words : generativity, active ageing, work centrality, future time perspective

부록. 사용한 척도

1. 일중심성

※ 다음은 귀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주로 하셨던 일(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아래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1) 인생은 일에 몰두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 2)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 3) 삶에서 일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4)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할 것이라 생각했다.
- 5) 삶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역문항)
- 6) 나는 일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 7)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었다.
- 8)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해서 승진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였다.
- 9) 내 삶에 있어서의 포부(야망)는 주로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 10) 일이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중심에 있었다.
- 11) 나는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12) 나는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했었다.

2. 활동적 노년 척도의 '참여' 문항

- 1)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 2) 독서나 TV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 3)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한다.
- 4)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
- 5)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6)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 7)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 8) 가족 외에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돌봐준다.
- 9) 지역 공동체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상담해준다.